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실천 로터스관 건립

세계 명문대학을 향한 큰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동국의 역사에 함께하는 특별한 기회

여러분의 이름이 동국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됩니다.

‘오백나한회’ 동참 캠페인

신심과 보시로, 로터스관과 선센터(명상·마음치유센터)를 세웁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을 맞아 오백나한회 동참 캠페인을 통해
불교정신을 계승할 뜻깊은 공간 조성에 함께해 주십시오.

참여 등급 및 인원

등급	문수(文殊)	보현(普賢)	관음(觀音)
금액	1억원	1,000만원	500만원
인원	500명		



※선센터 내부에는 오백나한상이 봉안되며,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원력을 새깁니다.



문의처 안내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

02-2260-3300 / 010-6561-3301
ilovedgu@dongguk.edu

정각도량 164

불기 2570(2026)년 / 정각도량 제164호 / 비매품 포교지 / 발행처 : 동국대학교
서울 · 와이즈 캠퍼스 정각원 / <http://jeonggak.dongguk.edu>



특집 |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는 만해 스님

dongguk
UNIVERSITY

천년의 신앙과 예술을 담아낸 작은 법당,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木造三尊佛龕

참고 도상



본존불상과 협시보살상,
제자상 부분도
(©국가유산청)

좌·우
협시보살상 부분도
(©국가유산청)



불감 뒷면 부분도
(©국가유산청)

순천 順天 송광사 松廣寺 성보박물관에는 전체 높이가 약 13cm, 문을 열어 모두 펼쳤을 때의 너비가 약 17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이 동식 법당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된 '목조삼존불감 木造三尊佛龕(국보 제42호)'이다.

불상을 모시기 위해 나무나 돌 등을 깎아 작은 규모로 만든 것을 불감 佛龕이라 하는데 이 불감은 보조국사 普照國師 지눌 知訥(1158~1210)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나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은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고의 불감 가운데 하나이며 크기는 매우 작지만 섬세하고 세련된 공예 예술성의 정수를 보여준다. 또한 이 불감은 중국 당나라 화풍의 조형 양식도 엿볼 수 있어서 나말려초 羅末麗初 불교문화의 수용과 전개를 보여주는 귀중한 불교미술 유산으로 천년의 신앙과 예술혼을 고스란히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송광사 불감은 본존불상과 협시보살상, 제자상, 코끼리와 사자상, 정교한 건축구조와 장엄 등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조각과 공예 기술 등이 하나로 융합된 수작 秀作으로 볼 수 있으며 중앙과 좌·우측, 모두 3부분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중앙 본존불상이 있는 방을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방이 문짝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 양쪽의 문을 닫으면 윗부분이 둥근 팔각기둥 모양이 된다.

중앙의 큰 방에는 연꽃 대좌 臺座 위에 결가부좌 結跏趺坐하고 있는 석가모니 본존불이 조각되어 있고, 좌·우측의 작은 방에는 코끼리 대좌의 문수보살상(向右)과 사자 대좌의 보현보살상(向左)이 배치되어 있다. 본존불상은 양 어깨를 감싼 통견의를 수垂하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은 매우 작은 크기에 세부 묘사가 아름답고 정교하여 당시 우수한 조각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구 구조와 장식 표현 등에서는 이국적인 면이 보이고 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감 가운데 매우 희귀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안에 품어낸 도상 구성과 조각 기법 등은 온전한 신앙심을 갖추고 있으며 과히 범접하기 어려운 거대한 불교미술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느껴진다.

고승희 / WISE캠퍼스 디자인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교수



■ 건학이념

본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

■ 교육 목적

본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불교인재양성 기금모금 캠페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청년불자양성 불교인재양성에 함께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 후
약정서 작성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대외협력처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100주년기념관 3층 대외협력실

전화. 054-770-2200 홈페이지. ilove.dongguk.ac.kr

정각도량 164호

불기 2570(2026)년 가을호



표지 사진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順天 松廣寺 木造三尊佛龕).
국보, 통일신라말기~고려초기 경,
높이 13cm, 너비 17cm,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
(©국가유산청)

정각도량 통권 164호

- 발행일 : 2026년 9월 1일
- 발행처 : 동국대학교
서울 · 와이즈 캠퍼스
- 서울정각원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 (02)2260-3015-8
Fax : (02)2260-3744
- 경주정각원
38066 경주시 동대로 123
Tel : (054)770-2924
Fax : (054)770-2009
- 발행인 : 윤재웅
- 편집인 : 유주성(제정스님)
이종억(법천스님)
- 편집위원 : 유주성, 이종억
정승석
- 편집주간 : 정승석
- 편집간사 : 이민기
- 편집사무 : 박진영
- 디자인 / 인쇄 : 중도기획 (02)2278-2240

제호 정각도량은 세종 29(1447)년에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하여
한글로 지은 月印千江之曲에서 집자한 글씨.

정각도량

2 마음이 그리는 대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현담 스님

특집 |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는 만해 스님

4 님의 침묵, 백 년을 읽고도 간절함이 부족하면 / 석길암

8 『님의 침묵』과 심우 / 박판식

12 『님의 침묵』 100년, 만해 스님이 건네는 위로 / 전한성

14 문화기억으로서의 만해 한용운 스님 / 강지훈

불교 수행의 길잡이

16 나의 소중한 행자도반! 다시 걷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 청진 스님

불교와 사회복지

18 외로움의 시대, 자비를 묻다 / 민재 스님

불심의 창

20 정각원에서 배운 지혜, 그 길 위에서 / 이정원

열린 마당

22 원효의 훈습(薰習), 오늘날의 학교에서도 가능한가? / 김상무

사찰음식 테라피

24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사찰음식 / 성화 스님

내 마음의 금언

26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 / 도현 스님

불교예술의 세계

29 바다를 건너온 관음: 무위사 극락보전의 백의관음도 / 이승희

마음이 그리는 대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현담 스님 | 정각원 교법사

우리는 무심코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고 말한다. 흘러듣기 쉬운 이 한마디에는 사실 아주 오래된 불교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설하신 일체유심조, 곧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이 그것이다. 경전에서는 이를 “마음은 마치 훌륭한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를 다 그려낸다”(心如工畫師 能畫諸世間)는 계송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세상이 먼저 있고 내 마음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세상이 비로소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국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맞이하는 내 마음에서 갈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좋게 생각하면 무엇이든 뜻대로 된다’는 말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불교는 가난과 질병, 차별과 상실 같은 현실의 조건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을 바르게 보고 그 조건을 자비롭게 바꾸라고 가르친다. 다만 같은 물을 두고도 물고기는 삶의 터전으로, 사람은 마실 물로, 천인은 보배로운 유리로, 굶주린 아귀는 피고름으로 본다는 ‘일수사견—水四見’의 비유처럼, 동일한 사건도 각자의 업과 기억, 습관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로 경험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암시가 아니라,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바란다. 그러나 행복은 언젠가 도달할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따로 떨어진 세 토막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흐름이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을 놓치는 셈이 된다. 그러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한 생각을 돌이켜 깨달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라 했다. 고통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원망하기보다 내일을 키우는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그 내일은 반드시 밝아온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유마경』은 이 이치를 한층 또렷하게 밝힌다.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만큼 불국토佛國土도 청정해 진다.” 여기서 ‘청정하다’는 말은 티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과 집착을 넘어서 깨달음의 결지를 가리킨다. 대승불교의 보살행이 끝내 다다르고자 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 이 가르침은 『반야경』의 ‘공(空)’ 사상에 뿌리를 둔다. 세상 만물은 고정된 실체로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모여 잠시 이룬 모습일 뿐이다. 만

물이 그렇게 공 하기에 나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세상은 그때그때 새로 지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괴롭다 하여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세상을 원망하며 신세를 한탄한들, 그것만으로 세상이 좋아지거나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 동국의 선배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삶을 돌아보자. 올해는 1926년 5월 20일 시집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 제1회 졸업생인 만해 스님은 수행자이자 시인으로 머물지 않았다. 1913년 『조선불교 유신론』을 펴내 낡은 관습에 갇힌 불교의 혁신과 대중화를 주장했고, 1919년에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운동에 참여했다. 옥중에서도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을 지어 독립의 정당성을 굵힘없이 밝혔다.

『님의 침묵』의 첫머리에서 “님은 갔습니다”라고 이별을 직시한 시인은, 끝내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님’은 한 가지 뜻으로만 가둘 수 없다. 학계에서는 사랑하는 존재이면서 부처님이고, 빼앗긴 조국이며, 자유와 진리 같은 궁극적 가치가 겹쳐지는 열린 상징으로 읽어 왔다. 중요한 것은 부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재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다. 떠난 님을 보내지 않는다는 역설은 상실을 집착으로 붙드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님을 다시 맞이할 길을 스스로 열어 가겠다는 서원으로 읽을 수 있다. 물론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아픔을 억지로 미화하거나 실패를 성공이라고 우기는 일이 아니다. 슬프면 슬픔을 온전히 알고, 두려우면 두려움을 정직하게 바라보되, 그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만해 스님의 한 생각은 시가 되고, 그 시는 독립과 자유를 향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불교에서 마음과 행위는 둘이 아니다. 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거듭된 행동이 습관과 인격을 이룬다. 그러므로 오늘의 작은 선한 선택 하나가 내일의 세계를 짓는 업業의 씨앗이 된다.

역경을 발판으로 삼는 마음가짐은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다. 나를 상처 입은 약자로만 가두지 않고 자라나는 존재로 바라보며, 고난을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양분으로 바꾸어 대접하는 것—‘번뇌가 곧 깨달음(煩惱即菩提)’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다.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어나듯, 어둠을 통과한 마음에서 비로소 밝음이 열린다.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리고, 나의 실패를 통해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이미 보살행의 씨앗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 마음이 그리는 대로 나의 세상이 펼쳐진다. 눈앞의 불안에 속아 스스로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자. 다만 마음이 세상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좋은 세상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오늘의 말과 행동으로 그 세계를 지어가야 한다. 아침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만날 것인가’를 묻고, 저녁마다 ‘오늘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상처가 되었는가’를 돌아보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꾸는 것,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비와 지혜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마법이다. 한 생각을 밝히면 한 사람이 밝아지고, 한 사람이 밝아지면 그가 서 있는 도량 또한 밝아진다. 우리 모두의 청정한 한마음이 곧 이 캠퍼스를 불국토로 가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발원한다. **[정각도량]**

님의 침묵, 백 년을 읽고도 간절함이 부족하면

석길암 |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보통 한 인물의 탄신을 기념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일이 아주 드물지는 않다. 사람이 비록 이름을 남길 만한 경우가 드물다고 하지만, 이름을 남길 만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기억으로 담는 일이 드물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혹은 한 나라 전체가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고, 한 나라 전체가 대를 이어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그런 세상살이에서 한 권의 책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더더욱 흔치 않다. 한 권의 책이 백 년을 넘어 기억되고 기념할 만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한 권의 책이 백 년 동안 잊히지 않고 다시 읽히고, 다시 쓰이고, 다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 책 한 권이 우리 앞에 백 년 동안 살아남아 기억을 재촉한다. 아니 백 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되새기라고 재촉한다. 지나온 백 년 때문에, 나아갈 백 년 때문에!

『님의 침묵』, 이 한 권의 책이 백 년 동안 우리 역사를 걸어온 이야기이다.

십 년을 읽히는 책도 있고, 백 년을 읽히는 책도 있고, 천 년을 읽히는 책도 없지는 않다. 하고 많은 책 중에 백 년을 맞이하는 책이 많을 텐데, 백 년을 기념하는 책은 또 드물다. 백 년 동안 백 군데가 넘는 출판사에서 백 개가 넘는 판형을 거듭하면서 읽힌 책이기도 하다. 『님의 침묵』 시집 한 권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았더라도 “님은 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갓습니다.”라는 대표 작품 ‘님의 침묵’ 한 구절 짚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시집이기도 하다. 그 만큼 우리 최근의 백 년 동안, 우리네 삶과 늘 함께 있었던 ‘무엇’이라고 할 것이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이다. 1904년 백담사에 들어가 이듬해 출가했다. 용운龍雲은 그의 법명이고, 만해萬海는 그의 법호이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였고, 3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 백담사에 들었다. 백담사에 머물렀던 이 시기에 그는 두 권의 책을 탈고했다. 한 권은 『십현담주해』로 1925년 6월에 탈고하였고, 또 한 권은 바로 『님의 침묵』이니 같은 해 8월 29일에 탈고하였다.

민족의 정체성과 조선불교의 주체성에 대한 간절함에 임제종 운동을 전개했고, 다시 대한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간절함에 3.1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옥고를 치르고 난 뒤에 곧장 향한 곳이 설악의 백담사이고 오세암이었다. 붓다의 가르침은 삶을 속박하는 번뇌에 대해 가르치고,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친다. 개인의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을 규정하는 사회에 의해 주어지는 구속 곧 번뇌이다. 그 번뇌를 벗어난 자재自在 자유自由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승려의 본분이다. 그 본분을 온전히 성취하는 길에 가장 큰 속박이 바로 대한인을 대한인답지 못하게 하는 일제의 속박이었다.

일제의 속박에 따라 옥고까지 치른 참이었다. 일제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오세암에 든 까닭의 일절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이가 있었다. 바로 설잠雪岑이다. 세속의 사람들은 생육신 중의 김시습(金時習, 1435~1493)으로 더 많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다. 설잠이 세속의 구애拘礙를 벗어던지고 오세암에 머물 때 한 권의 책을 지었다.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이다. 온갖 번뇌로부터 벗어난 자재의 경지에 이르는 선문禪門의 설명서이다. 또한 번뇌를 타파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삶은 어떠한지, 어떠한야 하는지를 보이는 법어이기도 하다.

만해 스님은 거기에서 한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번뇌를 타파하고 드러난 깨달음의 경계를 따라 다시 비批하고 주註했다. 비평을 달고 설명을 더했다는 의미이다. 그 의미를 스님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풀었다.

“대저 매월이 지키는 바의 지조는 세상과 서로 용납되지 않아 구름과 수풀에 떨어져서 때로는 원숭이와 같이, 때로는 학과 같이 하기도 하며 마침내 당대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천하 만세에 몸을 결백하게 하였으니, 그 뜻은 괴로웠고 그 정은 비분함이 있었다. 또한 매월도 십현담을 오세암에서 주해했고, 나도 또한 오세암에서 열경의 주해를 읽었다. 사람들이 접한 지는 수백 년이 지났건만 그 느끼는 바는 오히려 새롭구나. 이에 십현담을 주해한다.”(『십현담주해』 서문 중에서)

설잠의 『십현담요해』에 다시 비批와 주註를 붙인 까닭에 대한 만해 스님 자신의 언급이다. 설잠이 지향하는 바의 삶이 세상과 맞지 않았다. ‘그 뜻은 괴로웠고 그 정은 비분함이 있었다’는 말에서 만해 스님이 설잠의 심경에 어떻게 공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실 스님 자신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스님 역시 ‘그 뜻은 괴로웠고 그 정은 비분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 뜻이 괴롭고 그 정이 비분한 데서 공감했지만, 만해 스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보았다. ‘느끼는 바가 오히려 새로웠다’는 것은, 언뜻 보면 『십현담주해』의 다른 생각을 더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십현담주해』에서 만해 스님의 경계가 멈추었던 것이 아니기에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십현담주해』는 만해 스님이 다다른 경계였을 뿐이었다. 그 경계를 거기에서 그쳤다면 만해 스님의 깨달음은 불교 선문禪門의 선사의 깨달음에 멈추었을 것이다.

만해 스님은 멈추지 않았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것이 88편의 시구로 다시 한번 풀어헤쳐졌다. 우리가 지난 백 년 동안 만나왔던 『님의 침묵』 바로 그것이다. 우연이 겹친 것이겠지만 스님이 탄생한 날이 1879년 8월 29일이고,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경술국치일이 1910년 8월 29일이며, 스님이 『님의 침묵』을 탈고한 날이 또 8월 29일이다. 묘한 일치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유가 옥쇄를 당한 날이 8월 29일이고, 스님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을 목도하고 그 본지풍광의 세계를 펼쳐 여든여덟 편의 시로

풀어 마친 날이 또한 8월 29일이다.

깨친 자는 깨침의 세계 곧 본지풍광에 머물지 않는다. 그 본지풍광의 세계를 세상에 펼쳐 내놓아 보이는 것이 또한 본분이고 당위인 까닭이다. 그 첫걸음이 『님의 침묵』 여든여덟 편을 세상에 풀어놓는 일이었다. 이듬해인 1926년 회동서관에서 초판본을 간행하였는데, 서시에 해당하는 「군말」은 『님의 침묵』을 세상에 풀어놓는 동기를 담고 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衆生이 釋迦의 님이라면 哲學은 칸트의 님이다

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찌니의 님은 伊太利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수없이 많은 해석이 백 년을 오르내렸지만, ‘님’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님’을 님이라 하는 순간 님은 이미 님이 아닌 까닭이다. ‘기룬’ 곧 ‘사무치는’ 대상이 되는 것은 다 님이다. 조국을 빼앗겼으니 조국이 기루는 대상이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삶을 잃었으니,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삶이 기루는 대상이다. 붓다, 달리 말해서 깨친 자의 삶은 우리가 마땅히 성취해야 할 삶이다. 그 깨친 자의 삶을 성취하는데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마찬가지이다.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이 온전히 발휘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개인이 부닥치는 번뇌가 그렇고, 공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제약이 또한 그렇다.

시집 『님의 침묵』 첫 번째에 놓이는 시가 바로 『님의 침묵』이다. 열 소절 중에 마지막 세 소절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만났때에 떠날것을 염려하는 것과같이 떠날때에 다시 만날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읍니다.

제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삶의 본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언제나 바래고 기다려 사무칠 것이기에, 반드시 다시 목도할 것이라는 서원의 발현이 여기에 담겨있다. 중생이여, 중생의 본래 모습은 붓다이니, 붓다로서의 삶을 바라는데 멈춤이 없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이다. 본지풍광에 들어 삶의 본래 모습을 펼치니 그러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선사禪師 만해 스님은 그렇게 노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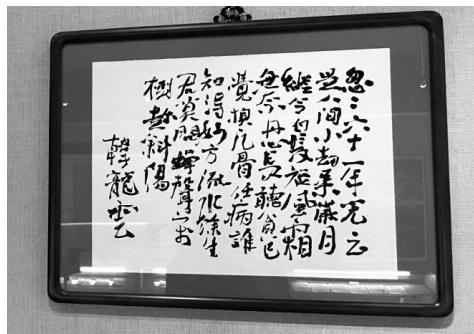
다만 본래의 온전한 삶을, 사람다운 삶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독자를 다시 한번 재촉한다. 마지막 시 「독자에게」가 그것이다.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때에는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이
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삶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재촉이요 채찍질이다.
선사들이 한결같이 놓치지 않는 삶의 본래 모습,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성취하고 펼쳐내는 것이다. 그
러하지 못한 까닭은 님에 대한 간절한 사무침, 기쁨이 부족한 까닭이다.

선사 만해 스님의 본지풍광이 세상에 『님의 침묵』이란 화두로 펼쳐진 지 이제 백 년! 왜 아직도 우리
는 님의 침묵을 읽는가? 선사는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여전히 사무치는 대상을 남겨두고 있는가? 사무친다고 말하고 기운다고 말하지만, 간절한 사무침 간절
한 기쁨이 여전히 부족한 까닭이 아닐까? **[장막도량]**

백담사 만해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만해 스님의 「화갑날 즉흥 한시」



恩恩六十一年光
총 총 육 십 일 년 광
云是人間小劫桑
운 시 인 간 소 겁 상
歲月縱令白髮短
세 월 종 령 백 발 단
風霜無奈丹心長
풍 상 무 내 단 심 장
聽貧已覺換凡骨
청 빈 이 각 환 범 골
任病誰知得妙方
임 병 수 지 득 묘 방
流水餘生君莫問
유 수 여 생 군 막 문
蟬聲萬樹趁斜陽
선 성 만 수 진 사 양

바쁘게 지나간 예순 한 해의 세월
사람들은 소겁같은 긴 생애라 하고
세월이 비록 백발을 재촉하지만
풍상도 깊어가는 단심은 어찌지 못한다.
가난하게 사느라 범골로 바뀐 것을 깨닫고
병을 안고 살아도 누가 묘방을 알려 주리오
유수같은 여생을 그대여 묻지 마오
숲속의 매미소리 석양을 만났다네.

『님의 침묵』과 심우 -진정한 포교는 스스로의 발심에서 비롯된다-

박관식 | 만해연구소 특임교수



① 『조선일보』, 1926년 5월 26일

② 『불교』 제24호, 1926년 6월

③ 『조선일보』, 1927년 4월 17일

우리는 흔히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의 님을 ‘일제강점기 잃어버린 조국’이나 ‘이별한 연인’ 또는 ‘부처’로 해석한다.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다. 위의 광고 문안에 나온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시집을 관통하는 진짜 매력은 그 애절한 정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구도자求道者의 발심과 자비심에 있다.

- ① 사랑의 폭포냐 애국의 산호도珊瑚島냐 상화想華는 아름답고 정조는 괴롭다. 그러나 한줄기 희망이 눈에 비치지 아니하나 마음으로는 볼 수 있다. 미소인 듯하더니 눈물이 되고 눈물인 듯하더니 실안개 뒤에 숨어있는 장미화가 된다. 웃으려야 입술이 움직이지 않고 울려야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새생명을 찾기 위하여 이 시를 읽어도 무방하다.
- ② 통철洞徹한 선지禪旨와 치밀한 사색으로 경오警悟가 극極하고 우의寓意가 깊은 격외格外의 선어禪語며 발취拔萃한 산문이라. 누구나 아니 읽을 수 없고 아니 찬탄할 수 없는 것은 만구萬口の 동평同評

- ③ 인생 행복의 정화精華는 아름다운 연애에 있다한다. 이 말을 부인하는 청년남녀는 누구나.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은 애국문예를 고조高調한다. 대조선大朝鮮을 넘으로 하여 연애의 화한단火漸緞에 정조적貞操的 천화(天花를 수놓아서 연애를 애국화하고 애국을 연애화한 애국시愛國詩의 혹성惑星이다. 웃자하니 눈물이 있고 울자하니 미소가 있다. 독자의 표정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님의 침묵』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독자의 자유이지만 이 노래는 한 선승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부처의 깨달음, 즉 내 안의 참된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연애시의 언어로 풀어낸 비유이자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만해 스님이 성북동에 집을 짓고, 소 찾는 집이라는 뜻의 심우장壽牛莊이라 하고 심우시를 쓴 것과 완벽하게 짝을 이룬다.

불교에서 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참된 나(불성)를 상징하는 비유였다. 만해 스님이 수필 『심우장설』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늘어놓았듯, 불경 속 불보살은 늘 인중우왕人中牛王이나 유여우왕猶如牛王 같은 근사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심지어 옛 선사들은 “학인이 부처를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 격(騎牛覓牛)”이라며 말하기도 했다. 결국 『님의 침묵』 속 님이 바로 만해 스님이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소였던 셈이다.

마음공부의 첫 장은 내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아픈 자각, 즉 소를 찾아 길을 나서는 단계(심우·尋牛)에서 시작된다. 만해는 자신의 심우시에서 “원래 못 찾을 리 없는데 산속 흰 구름이 이렇게 깔 줄 몰랐다”라며 벼랑 끝 거친 바람과 호랑이 울음 속에서 몸을 떠는 구도자의 심정을 노래한다. 이 발심의 기상은 『님의 침묵』의 문을 여는 서문인 「군말」의 고백에 그대로 겹쳐진다.

“나는 해저문 별판에서 도려가는 길을 일코 해매는 어린 羊이 기루어서 이 詩를 쓴다.” 여기서 기루다는 말은 그저 보고 싶어 눈물짓는 나약한 감정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른 채 해 저문 별판을 방황하는 중생을 향한 묵직한 연민이자, 어서 정신을 차리고 진짜 나(님)를 찾으러 떠나자는 간절한 발심發心の 촉구다.

길을 나선 화자는 오래지 않아 온 세상에서 님의 흔적, 즉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단계(견적見跡)에 이른다. 만해 스님은 “문득 보니 풀 헤치고 꽃 밟은 자국, 굳이 다른 데 가 찾을까”라는 자각을 한다. 멀리 찾으러 갈 필요 없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 진리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을 표현한 시가 바로 『님의 침묵』의 「알스수 업서요」와 같은 시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垂直의 波紋을 내이며 고요히 떠러지는 오동닙은 누구의 발자취임닛가
지리한 장마솟헤 서풍에 물너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임닛가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뉘뉘리를 울니고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내는 구빅구빅 누
구의 노래임닛가

떨어지는 오동잎에서 님의 발자취를 읽고, 흩어지는 구름 사이 푸른 하늘에서 님의 얼굴을 보며, 굽이치는 시냇물에서 님의 노래를 듣는 것이 바로 님이 남겨둔 발자국이다.

님의 흔적을 쫓던 화자는 마침내 숨어 있던 님과 눈이 마주치는 기적 같은 ‘견우見牛’의 순간을 맞이한다. 소를 찾아 먼 길을 떠돌았지만, 사실 소는 단 한 걸음도 내 걸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 「어데라도」에서 만해 스님은 장난치듯 내 마음에 숨어 있는 님을 기어이 찾아내고야 만다.

어데라도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당신이 계시기에 눈을 감고 구름 위와 바다 밑을 차저 보았 습니다

당신은 微笑가 되어서 나의 마음에 숨었다가 나의 감은 눈에 입마추고 「네가 나를 보느냐」 고 嘲弄합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발심자는 “내가 곧 당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득우得牛의 경지를 얻지만 곧 말 안 듣는 소를 길들이는 목우牧牛의 고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소를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 자칫 옛 버릇(습기·習氣) 때문에 소가 다시 달아날까 봐 늘 고삐를 단단히 쥐고 마음을 길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은 이 치열한 다스림의 과정을 「복종服從」이라는 시를 통해 역설적으로 노래한다.

남들은 自由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服從을 좋아하야요

自由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服從만하고 싶혀요

服從하고 싶은데 服從하는 것은 아름다운 自由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幸福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절대적인 진리(님)에게 나를 온전히 다 바치는 것, 만해 스님은 복종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세상의 헛된 욕망과 번뇌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선가禪家의 대자유를 얻은 것이다. 고삐를 매지 않아도 온갖 일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참된 평안의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소를 타고 유유자적 집으로 돌아오면(기우귀가·騎牛歸家), 마침내 소도 사라지고 나 홀로 한가로워지는 단계가 찾아온다. 만해 스님은 이 단계를 “바쁜 걸음 소에 맡겨 산이며 물을 한달음에 가니 나 홀로 한가롭다”고 표현하면서도, “간간이 창밖으로 꿈은 달려나간다”며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는 미세한 집착(아상·我相)이 남아있는 망우존인忘牛存人의 차원에 대해서도 고백한다. 「만족」은 스님의 그와 같은 고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시다.

滿足을 엿고보면 어든것은 不滿足이오 滿足은 依然히 압헤잇다…… 아스, 나는 滿足을 어딴노라
아즈랑이가튼 과 金실가튼 幻想이 넘기신 모동산에 돌닐 아스, 나는 滿足을 어딴노라

님이 남긴 꿈과 환상 속에서야 겨우 만족을 얻었다고 외치는 화자의 모습은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울림을 준다. 그리고 마침내 나와 소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져 텅 비어버리는 절대 공초의 경지, 즉 인우구망(人牛俱忘)의 절정은 시 「수축의 비밀」 속 여인의 수줍은 바느질로 치환된다. 만해 스님은 차운한 선사에서 색색과 공초이 모두 비어 하늘 높이 뻗어 든 칼날 위에는 먼지 하나 앉을 수 없다고 노래했는데, 이 수승한 이치를 『님의 침묵』에서 영원한 미완성의 주머니를 짓는 여인의 고백을 빌어 표현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엷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뵈게는 아는 사람이 엷습니…… 이 적은 주머니는 지키 시려서 지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코 십혀서 다 지치 안는것입니다

크고 어려운 옷은 다 지어놓고도, 작은 주머니 하나만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바늘구멍으로 온 마음을 밀어 넣어 맑은 노래를 자아내는 순간은 나도 잊고 소도 잊은 진정한 선禪의 극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길고 치열한 구도의 여정 끝에 만해 스님이 다다른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혼자만의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었다. 반본환원(返本還源: 근원으로 돌아가다)은 신통력의 신이함이 아니라 봄날의 꽃처럼 평범하고도 우리의 인생과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기적이다. 그리고 심우도의 마지막 단계는 입전수수(入塵垂手)로 표방되는데, 깨달음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 고통 받는 중생이 가득한 시끌벅적한 저잣거리로 걸어 들어가는 대승적 보살행을 뜻한다. 만해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 심우사에서 “진흙 속에도 물 속에도 마음대로 오가면서…… 훗날 망망한 고해 속에서도 다시 불꽃 속에서 연꽃으로 피게 하리”라며 서원을 세운다.

시집 전체가 이 거친 저잣거리의 중생들을 위해 쓰인 자비심의 발현이지만, 그중에서도 「찬송讚頌」의 한 구절은 만해 스님이 가슴에 품었던 보살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弱者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慈悲의 菩薩이 되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어 어름바다에 봄바람이어

만해 스님에게 ‘님’은 불성이자 진리였고, 동시에 일제강점기라는 고해 속에서 신음하는 조선의 이웃이자 잃어버린 조국이였다. 위산 선사가 죽은 뒤 저 산 아래로 가 기꺼이 한 마리 물빛 황소가 되어 중생을 돕겠다고 했던 것처럼, 만해 스님 역시 기꺼이 중생의 고해 속으로 뛰어든다.

만해 스님은 자신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무명의 중생을 따뜻하게 깨우기 위해, 때로는 선시로 또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애뜻한 한글 연애시의 형식을 빌려 이 보살행의 여정을 완성한다. 『님의 침묵』에 담긴 구도자의 이 서늘하고 호기로운 기상은 시대를 초월해 세상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고자 한 한 불교도의 따뜻한 메시지인 것이다. **장막도랑**

『님의 침묵』 100년, 만해 스님이 건네는 위로

전한성 | 만해연구소 소장, 국어교육과 교수

시대의 소음을 품은 연꽃, 현대인을 위한 내면의 위로

올해 2026년은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26년 회동서관을 통해 88편의 시를 엮은 『님의 침묵』을 출간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어난 이 시편들은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절한 이별을 노래한 서정시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빼앗긴 조국에 대한 비통한 탄식이자, 칙칙 같은 시대 속에서도 부재하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의 뼈저린 갈망을 오롯이 담아낸 정신적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 억압에서는 벗어났을 지언정 무한 경쟁과 이념적 대립, 그리고 초연결 속에서도 오히려 짙은 고립감을 느끼는 파편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정 시대의 저항 문학을 뛰어넘어 인간 보편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님의 침묵』은, 이렇듯 이별과 상실의 시대를 겪는 현대인들에게 슬픔을 승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치유의 문학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의 소음 속에서 스님이 남긴 고요한 ‘침묵’은 그저 세상의 번잡함을 외면하는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새로운 사유의 공간을 활짝 열어줍니다. 주목할 점은 이 위로가 단순히 알팍한 감정적 위안을 건네거나 외부의 스펙을 쌓는 전통적인 ‘업스킬링(Up-skilling)’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님의 침묵은 흔들리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돌보는 치유의 과정이자, 불확실한 삶을 주체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근원적 생애 역량을 함께 기르는 이른바 ‘케어스킬링(Care-skilling)’ 차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단하고 주체적인 위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님의 침묵』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중도와 화엄의 사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도中道와 화엄華嚴의 사유, 상실을 희망으로 빚어내다

『님의 침묵』의 기저에 흐르는 핵심적인 정서는 이별이 가져다주는 짙은 슬픔에 무기력하게 함몰되지 않고, 이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기다림으로 치환해 내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는 현상계의 ‘있음(有)’과 ‘없음(無)’이라는 양극단의 집착을 과감히 버리고, 사물과 세계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불교의 중관론中觀論적 세계관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스님은 시집의 서두인 ‘군말’을 통해 “님만 님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나’와 ‘님’이라는 주객의 분별,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현상적 이분법의 경계를 철저히 허물어뜨린 위대한 철학적 도약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존재가 파편처럼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 원융무애(圓融無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華嚴) 사상을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승화시키며,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는 현대 사회를 치유할 귀중한 사상적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짙은 번뇌가 있어야 비로소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끝내 보리(菩提)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스님 역시 이별이라는 상실(無)의 심연 속에 이미 새로운 만남(有)의 씨앗이 움트고 있음을 날카로운 통찰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의 터널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통과하여, 마침내 만남의 기대로 나아가는 이 고귀한 수행의 과정은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정한 위로란 외부에서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긍정하는 주체적인 사유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역설입니다. 고통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케어스킬링적 위로의 본질이며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님의 침묵』이 박제된 문학이 아닌 생동하는 지혜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100년을 잇는 혁신, AI 시대의 정각(正覺)과 평생의 배움

이처럼 시대를 훌쩍 초월해 유효한 만해 스님의 사유와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노력도 오늘날 다각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를 비롯하여 학계와 각종 단체들에서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내외 학술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만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빛바랜 과거의 문헌을 전산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의 심오하고 생명력 넘치는 철학을 현대 사회의 필수 교양인 AI 리터러시 및 디지털 역량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매우 혁신적인 교육적 시도입니다.

이러한 학제 간 융복합 연구와 디지털 전환의 노력은 대학교육 내 전통적인 분과학문의 견고하고 좁은 경계를 허무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 주체적 자아 확립이라는 스님의 숭고한 사상은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학습자와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열린 장에서 소통하며 내면을 다질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적 매트릭스이자 이정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님의 침묵』은 그 자체로 시대를 뛰어넘어 고통받는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거대한 정각(正覺)이자, 결코 흔들림 없는 마음의 도량입니다.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거센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스님이 건네는 이 깊고 넓은 침묵의 공간 속에서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스스로의 내면을 돌보는 힘을 바탕으로, 타인을 향한 따뜻한 상생과 연대의 발걸음을 어느 때보다 힘차게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정각도량**

문화기억으로서의 만해 한용운 스님

강지훈 |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연구원

1925년 8월 29일 설악산에서 원고가 마무리되고 이듬해 5월 20일자로 간행된 시집 『님의 침묵』이 올해 백 주년을 맞았다. 백 년이라는 숫자는 축하의 단위이기 전에 하나의 문턱이다. 독일의 문화학자 안 아스만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어지는 ‘소통적 기억’의 수명이 대체로 80년에서 100년을 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 문턱을 지나면 기억은 두 갈래 길에 놓인다. 자연스레 사그라들어 사라지거나, 문자와 사물, 장소와 의례라는 인공의 그릇에 옮겨 담겨 ‘문화적 기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만해 스님을 직접 뵈고 그 음성을 기억하던 분들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100주년을 기린다는 것은 잔치를 여는 일이 아니라, 만해 스님을 어떤 그릇에 옮겨 담을지 결정하는 일에 가깝다.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은 안 아스만이 아내이자 동료인 알라이다 아스만과 함께 세운 것이다. 문화적 기억은 ‘저장기억’과 ‘기능기억’이라는 두 층으로 움직인다. 저장기억은 저수지다.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과 대안, 모순까지 그대로 고여 있다. 기능기억은 그 물을 끌어와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흐르게 하는 물길이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기억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저장기억과 기능기억이 상보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수지가 마른 기억은 언젠가 구호로 굳고, 물길을 내지 않은 기억은 창고에서 먼지를 쓴다.

이 말이 서늘하게 들리는 까닭이 있다. 기념사업은 대개 기능기억만을 부풀리기 쉽다. 만해는 이미 여러 겹의 기능기억을 지나왔다. 저항의 시인, 3·1운동의 독립지사, 불교혁신의 선승, 심우장의 거사. 어느 이름도 틀리지 않지만 어느 하나로도 그를 다 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의 상이 또렷해지는 순간 나머지는 조용히 흐려진다. 문화적 기억은 정전(正典)이 되면서 힘을 얻지만, 정전이 된 기억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는다. 질문받지 않는 기억은 존경받는 대신 살아 있기를 그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애쓰는 일은 저수지를 넓히는 쪽이었다. 지난 3월 만해연구소는 아카이브와 인공지능을 화두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만해 스님을 한국의 인물에서 세계의 인물로 다시 놓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스님을 더 잘 기리기 위한 준비라기보다, 후대에게 만해 스님을 다시 고민할 기회를 남겨 주는 일이다. 아직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에 답할 자료까지 남겨 두는 것, 그것이 백 년 뒤의 연구자에게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물길을 내는 일이 진행되었다. 시민들이 시집을 읽고 가장 마음에 남은 구절을 손으로 옮겨 적어 보내온 손글씨를 모아 108선을 가리고, 이를 한 권의 국민시집으로 엮어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공모작들이 한곳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이별의 문장을, 어떤

이는 기다림의 문장을, 어떤 이는 고통을 사랑하겠다는 문장을 골랐다. 108은 중생의 번뇌를 가리키는 수다. 하나의 만해가 아니라 백여 개의 만해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각각 다르게 태어난 셈이다. 기능기억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모습은 아마 이런 것일 터이다. 정답이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대답이 공존하는 상태일 것이다.

7월 29일에는 만해 스님께서 1910년대에 걸었던 중국 서간도의 길을 따라 나선다. 여순감옥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자리다. 스님은 그 의거를 기려 한시 「안해주」를 남겼으니, 이 길은 만해 스님이 품었던 독립의 마음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다. 통화 일대의 한 고개는 만해 스님이 실제로 총을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리다. 만해 스님의 자유와 독립이 관념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감내한 현실이었음을 몸소 체험하는 장소이다. 8월에는 인제와 서울에서 만해 정신을 이룬 장소와 사람, 책과 글을 한자리에 모으는 전시가 이어진다. 전국에 흩어진 초간본과 판본, 친필유묵과 간찰 등이 한자리에 놓인다. 답사와 전시도 지식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몸에 새기는 일이다. 문화적 기억이 의례와 반복, 몸의 실천을 통해 이어진다는 안 아스만의 지적은 이 대목에서 가장 실감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기념은 쉽게 소유로 기울어진다. 만해 스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순간, 만해 스님은 우리가 이미 아는 만큼으로 작아진다. 만해 스님이 시집의 서두에서 남을 끝내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싶다. 남은 조국일 수도, 부처일 수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열려있음이야말로 이 시집이 백 년을 견딘 힘이라고 생각한다. 기억도 그렇게 열려 있어야 한다. 만해 스님을 하나의 정답으로 봉안하는 대신, 세대마다 다시 물을 수 있는 물음으로 남겨두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양이다.

생각해 보면 불교에서 기억은 본래 수행의 이름이었다. 염습은 흠여지는 마음을 붙들어 지금 이 자리에 세우는 일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제자들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외워 전한 기억의 사슬을 타고 오늘날까지 흘러왔다. 경전이 결집되고 사경이 이어지고 법회가 반복되는 동안, 기억은 지식이 기를 그치고 실천이 되었다. 만해 스님을 기리는 방식도 이 오랜 전통에서 배울 것이 많다. 만해 스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연보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그가 평생 붙들었던 자유와 자비의 화두를 우리가 다시 들고 앉는 일이다.

아침마다 정각원의 범종소리가 캠퍼스에 퍼진다. 그 소리는 저절로 울리지 않는다. 누군가 새벽에 일어나 종을 치기 때문에 울린다. 기억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큰 삶이라도 뒤에 남은 이들이 자료를 지키고 다시 읽고 몸으로 옮겨 적지 않으면, 기억은 백 년의 문턱에서 조용히 걸음을 멈춘다. 결국 기념이란 지혜의 눈으로 자료를 살피고 자비의 마음으로 그 뜻을 나누는 일, 곧 회향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스님은 남이 떠난 자리에서 “아아, 남은 갔지만 나는 남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썼다. 문화기억이란 다름 아닌 이 문장의 뒷부분이다. 남은 이미 백 년 전에 가셨으나 우리가 아직 보내지 아니하였기에 만해 스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 다음 백 년의 사람들도 같은 문장을 이어 쓸 수 있도록, 저수지를 넓히고 물길을 내는 일을 오늘도 이어갈 뿐이다. **장각도량**

나의 소중한 행자도반! 다시 걷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청진 스님 | WSE 캠퍼스 전법특임교수

얼마 전,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인사를 나눈 뒤 상대방은 “청진 스님이신가요?”라고 물었고, 나는 “네 맞습니다. 누구신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 00 스님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한여름 더위 속에 들려온 스님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어눌하여 누구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27년 전 행자 교육 때 스님께서 제 옷을 빨아 주셨고, 함께 계를 받았어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7년 전, 나는 행자 반장을 맡았었고, 그 스님은 행자 교육 때 막내 행자였다. 체구가 몹시 왜소했던 데다 하루 종일 은사스님을 찾으며 그리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당시 행자교육은 수계를 앞둔 많은 행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 그 막내 행자는 “우리 은사스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자주 말하곤 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조금 의아하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정해진 시간 안에 옷을 빨고 정리하며 여러 소임을 해내야 했지만, 막내 행자는 일하는 것이 서툴러서 자연스럽게 챙겨 줄 수밖에 없었다.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억은 더욱 또렷해졌다. 우리 노스님과 그 스님의 은사스님은 가까운 도반이었고, 나는 예전에 노스님 계신 절에서 그 스님을 몇 차례 만난 적도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전화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니 스님은 답답한 목소리로 몸이 아프다고 했다. 무심코 어디가 불편한지를 물었더니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희귀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걷지 못한다고 했다.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조만간 요양 중인 곳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한 뒤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았다. 이를 뒤 도반을 만나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았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도반스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울컥 눈물이 났다. 뭐라 형언할 수 없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비로소 그동안의 안부와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만나질 정도만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 도반스님은 어느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이야기를 이어갔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도반스님은 지금도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무심결에 은사스님이 누구인지 어쭈어 보았다. “만오 스님이십니다”라고 하는데 ‘만오 스님’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법명이었다. 내가 기억을 더듬자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를 비롯해 여러 곳에 꾸준히 보시를 해 오신 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

스 불교학과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만오장학금이 떠올랐다.

‘아! 그 만오 스님이셨군요.’ 그 순간, 오래전 우리 노스님께 전해 들었던 만오 스님의 삶이 되살아났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쓸 것을 최대한 아끼고 절제하며 사셨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도반이 만오 스님의 하나뿐인 상좌였던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괜찮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도반스님은 한결같이 “괜찮아요, 스님,”이라고 답했다.

문득 도반스님에게 “평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도반스님은 은사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과기도를 올리고, 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한다고 했다. 나무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부처님을 믿고, 모든 선근과 공덕을 닦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수행이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떤 곳일까? 극락세계는 모든 번뇌를 여의고 안락과 평정을 누리는 청정한 세계이다. 『정토삼부경』 가운데 하나인 『관무량수경』에는 위제희 부인이 부처님께 청정한 세계를 보여 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 경은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의 왕비이자 아사세왕의 생모인 위제희 부인을 위해 설해진 것이다. 당시 데바닷다의 꾀에 넘어간 아사세왕은 아버지인 빔비사라왕을 일곱 겹의 성벽에 가두어 굶어 죽게 하려고 하였다. 왕비 위제희 부인은 몸뚱이 꿀과 영락 속에 포도주를 넣어 몰래 왕에게 전했으나,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위제희 부인마저 투옥되고 말았다. 이때 위제희 부인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대목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원컨대 저를 위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세상을 말씀해 주옵소서. ……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여 주십시오.”

언뜻 보면 이 구절은 현세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극락세계를 발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정토의 극락세계는 현실을 떠난 이상향을 지향하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현실을 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무량수경』의 핵심인 십육관법 또한 인륜과 도덕을 실천하는 것, 계행을 지키는 일, 부처님께 귀의하는 삶을 수행의 기초로 삼고 있다. 결국 정토는 현실을 떠나 찾는 세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과 연결되어 있다.

이번에 도반과 함께한 3일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몇 년 동안 중병과 싸우면서도 혼자 누고 일어서는 재활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했다. 주변의 간호사와 간병인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도반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유심정토唯心淨土를 몸소 실천하는 삶 그 자체였다. 이미 도반의 마음속에는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라는 믿음과,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정토가 자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스님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 한마디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이 되었다. 척수염증과 같은 희귀질환의 치료제는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 하루빨리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도반스님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정각도량**

외로움의 시대, 자비를 묻다

민재 스님 | WISE캠퍼스 전법특임교수

우리는 어느새 혼자 지내는 삶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5년 전체 일반 가구의 27.2%에서 2024년에는 36.1%로 증가하였다. 이제 일반 가구 세 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1인 가구일 만큼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과 공동체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산다는 것이 반드시 외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휴대전화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선뜻 전화를 걸 사람이 없고, 매일 수많은 사람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루 종일 자신의 안부를 묻는 사람 하나 없는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사회의 얼굴이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손 내밀 사람이 없고, 마음을 터놓을 정서적 버팀목마저 사라져 연결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에 그치지 않고 우울이나 불안, 자살 위험을 키우며, 끝내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또한 전환기를 맞이했다. 예전에는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관계의 회복’을 중요한 복지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자신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다면 삶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결국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삶의 감각인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도 인간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성립한다고 설하셨다.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緣起’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와 가족, 스승과 벗,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조력이 있었다. 우리는 마치 스스로가 잘나서 이 세상을 아주 잘 살아가는 것처럼 오만해지기 쉽지만, 실은 촘촘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효율과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람마저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하는 문화

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는 ‘이해타산적 관계’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각박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과 단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만들어 낸 구조적 결과물이다.

이러한 구조적 고립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를 비롯하여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이나 스마트 안심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정 시간 기기 반응이 없거나 대화 속에서 우울 지표가 감지 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분명 사각지대를 좁히는 의미 있는 복지서비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의 안부를 사람이 아닌 기계가 먼저 묻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쓸쓸한 관계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기술은 위험을 감지하고 생명을 지킬 수는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신하거나 인간의 외로움까지 치유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단절된 관계를 이어 붙이고 외로움을 치유하는 것은 기계가 아닌 인간의 따뜻한 ‘자비(慈悲)’에서 시작된다. 불교에서 자비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가엽게 여겨 돕는 동정심이 아니다.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온전히 느끼고,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깊은 공감과 실천이다.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가 “중생이 병들어 아프기에 보살도 병들어 아프다.”라고 말한 성찰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동체(同體)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자비이며 불교 사회복지의 근본 정신이다.

오늘날 홀로 쓸쓸히 눈을 감는 고독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우리 사회의 서글픈 거울인 셈이다. 누군가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망 어딘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화엄경』의 핵심 구절인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一即一切 一切即一)”라는 가르침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한 사람의 고립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국 구성원 모두가 고립되는 삭막한 사회가 되고, 반대로 한 사람의 무너진 삶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동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망이 된다. 연기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 사회복지의 거창한 복지시설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대 담론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인연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혼자 식사하는 이웃과 따뜻한 한 끼를 기꺼이 함께하며, 소외된 이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기억해 주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야말로 불교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자비행(慈悲行)’일 것이다.

오늘 하루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에게 “잘 지내시나요?”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사소해 보이는 이 말 한마디가 어찌면 절벽 끝에 선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자비의 실천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물질적 풍요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인연 안에서 비로소 살아지는 존재이기에... **정각도량**

정각원에서 배운 지혜, 그 길 위에서

이정원 | 불교학부 3학년

불교학부에 진학하기 전부터 불교는 이미 내 삶의 일부였다. 어릴 적 신심 깊은 불자였던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절을 찾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무엇 하나 아는 것 없이 그저 할머니를 따라나섰을 뿐인데, 절은 늘 환한 웃음으로 나를 반겨주었다. 스님들은 어린 나를 예뻐하시며 웃는 얼굴로 맞이하여 주셨고, 보살님들은 늘 맛있는 간식을 손에 쥐여 주시곤 하였다. 그 따뜻한 손길과 미소 덕분에 절은 어린 나에게 어렵거나 엄숙한 곳이 아니라, 언제 가도 마음이 놓이는 정겨운 공간으로 남았다. 돌이켜 보면 나의 유년 시절의 행복한 추억엔 늘 절이 있었던 셈이다.

절과의 인연은 자라면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나는 불교 종립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덕분에 불교는 자연스럽게 나의 학창 시절에 머물렀다. 대학 입시로 인해 지치거나 진로를 두고 마음이 복잡할 때면, 나는 조용히 법당을 찾아가 법사님께서 내어주시는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 나에게 그곳은 종교 시설이라기보다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쉼터에 가까웠다. 그 후 힘들 때마다 법당을 찾는 것은 어느새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다.

이렇듯 절과 법당은 늘 내 곁에 있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까지 나의 불교적 지식은 부족하기만 하였다. 절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을 뿐, 정작 불자로서 알아야 할 불교에 대한 이해는 터무니없이 얇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내가 불교학부에 진학하면서 비로소 불교를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정각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2025년 3월, 그렇게 시작된 정각원과의 인연 속에서 감사하게도 여러 불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봉축 법요식, 연등 행렬, 합장 데이(108배) 등 다양한 불교 행사와 매주 동국인들과 함께하는 법회까지, 처음에는 낯설기만 하던 자리들이 어느새 나에게 익숙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연등을 만들고, 등을 밝히고, 함께 경전을 독송하며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는 순간들 속에서 불교는 더 이상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다가왔다. 특히 연등 행렬에 참여하였을 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행렬하는 이들과 행렬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이들이 어우러지는 광경을 보며 불교가 거창한 이론이나 엄격한 수행 이전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따뜻한 종교이자 학문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정각원은 나에게 불교적 견문을 넓혀 준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디서든 만나기 어려운 값진 인연을 선물해 준 곳이기도 하다. 근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어진 업무에 대해 서툴기만 하였던 나에게 먼저 근로를 하고 있었던 언니들은 더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행사 준비 순서부터

법당에서의 작은 예절 하나하나까지, 언니들은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 따뜻한 배려 덕분에 나는 빠르게 정각원에 마음을 붙일 수 있었고, 어느새 우리는 대학 생활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그 귀한 인연은 뜻밖의 값진 경험으로 이어졌다. 언니들과 나는 용기를 내어 2025학년도 해외학술탐방장학에 함께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그 기회가 우리에게 닿아 '서구 명상의 개화, 한국 불교의 길: 유럽 수행 공간에서 바라본 한국 불교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 7월 서유럽으로 향했다.

우리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을 차례로 돌며 서구 사회 속에 뿌리내린 불교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있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한 불교용품점을 찾았는데, 유럽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불교와 관련된 물건들이 진열되어 팔리고 있는 풍경은 그 자체로 신선한 울림을 주었다. 불교가 이미 이곳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 스며들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 불교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조계종 사찰인 길상사와 베트남 불교 사원인 응옥 디엠 사원을 찾아, 먼 타국의 땅에서 아시아 불교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독일 뮌헨의 다이아몬드웨이 불교 명상센터에서는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불교와 명상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모습은 불교가 특정한 나라나 민족의 것이 아니라, 불심을 가진 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같은 가르침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이토록 다채로운 모습으로 피어난다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 깊었다. 이 탐방은 정각원에서 시작된 나의 배움이 결코 좁은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고, 나의 불교적 견문을 한층 더 넓혀 주었다.

돌이켜 보면 정각원에서 보낸 시간은 나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놓았다. 도량을 정돈하던 사소한 일들과, 언니들과 웃으며 근로하였던 순간들, 그리고 먼 유럽에서 마주한 낯선 불교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나라는 불자를 이루고 있다. 불교에 대해 여전히 배워 가는 중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삶의 태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이제 나는 오는 8월, 노르웨이로 교환학생을 떠나는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 지금껏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또 어떤 가르침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쩌면 그곳에는 나를 반겨줄 익숙한 법당도, 마음을 나눌 도반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크다. 정각원에서 배운 지혜가 이미 내 안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는 법,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디에 있든 흔들리지 않으며 굳은 뿌리를 유지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정각원이 나에게 건네준 값진 선물이다. 나는 노르웨이에서도 이 지혜를 나침반 삼아, 나만의 방식으로 불교적 정진을 이어 나가고 싶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이 따뜻한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정각도량**

원효의 훈습薰習, 오늘날의 학교에서도 가능한가?

김상무 | WISE캠퍼스 사범교육학부 교수

필자가 강의하는 과목 중에 [교육철학 및 교육사] 과목이 있다. 여기에는 ‘한국 교육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교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삼국시대부터 통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삼국시대를 설명할 때, 원효의 사상을 설명하면서 훈습薰習 개념을 소개하고는 오늘날의 학교에서도 훈습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에 짧은 동영상강의를 통해 원효의 사상과 함께 훈습 개념을 학습한 뒤, 온라인상의 이클래스에 이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학생 2명 이상에게 질문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댓글을 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달린 질문이나 반론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주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사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반론에 대해 답글을 달면서 이 주제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뒤, 수업 시간에 열띤 토론을 실행하고 있다.

원효가 말하는 훈습은 그의 저서 『대승기신론』 등에서 인간 마음의 변화 원리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훈薰’은 향기가 옷에 배어들듯 어떤 영향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의미하며, ‘습習’은 그러한 영향이 반복되어 하나의 성향과 습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뜻한다. 인간의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변화하며, 선한 환경 속에서는 선한 성향이, 악한 환경 속에서는 악한 성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관해, 필자는 고기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기 냄새가 내 옷에 스며들듯이, 교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게 되면 은연중에 학생들도 그것을 본받아 배우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훈습이 무의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훈습은 교사가 기본적으로 좋은 인성을 갖추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인격적 성숙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그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훈습이다. 교사라는 존재 자체가 풍겨내는 인품의 결이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물드는 과정이 훈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훈습은 학생을 변화시키려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교육’을 말한다.

오늘날의 한국 학교에서도 훈습이 가능한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 다수의 학생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 이유로, 입시 위주의 학교 시스템과 운영, 스마트폰, 유튜브, SNS 등 디지털 매체의 영향, 지식 전달자로 전락해버린 선생님을 과거처럼 존경하지 않는 사회와 학부모 풍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의 말과 행동이 주는 영

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이다. 또한, 학교 교육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교사의 인격이 학생에게 스며들어 영향을 미친다는 훈습의 개념은 현대교육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히는 학생도 있다.

나름 동의할만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훈습을 권위주의적 가치 주입이나 모방 교육으로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원효가 말한 훈습은 강제적 주입이 아니라, 인간이 타인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통찰이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격 형성의 과정이다. 학교 교육은 여러 교과목으로 이루어진 공식 교육과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배우는 동시에 학교문화와 인간관계를 통해 가치와 태도를 학습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준다면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교과서에서 배우기 이전에 존중과 경청의 의미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 반대로 공정성과 인권을 강조하는 교사가 실제 생활에서는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사의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원효가 말한 훈습의 교육적 의미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훈습이 불가능한가? 분명 교사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며, 학교 밖에서 형성되는 가치관의 영향력도 매우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훈습의 불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인간다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 공간이 되었다. AI가 지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존중과 책임, 배려와 공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체득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건강한 인간관계와 민주적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적 모델이 되는 데 있다.

그래서 필자는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예비교사들에게 훈습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흔히 교사의 전문성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나 디지털 활용 역량을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전문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원효의 훈습은 교사의 전문성 이전에 교사의 존재 자체가 교육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교사의 말투, 학생을 대하는 태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수업 준비에 대한 성실성,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은 모두 학생들에게 훈습된다.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을 존중했던 교사와 그렇지 않았던 교사는 오래 기억한다. 결국 교사의 인격은 교육내용과 분리될 수 없는 교육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원효의 훈습은 과거 불교 교육에서만 의미를 갖는 개념이 아니라 현대 학교 교육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교육철학적 원리이다. 오늘날 디지털 사회일수록 교사의 인격과 학교문화는 더욱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학생들은 지식보다 삶을 배우고, 설명보다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예비교사들에게 훌륭한 수업기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인격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각도량**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사찰음식

성화 스님 | 사찰음식 장인 2급, 청담교 교법사

사찰음식은 1,7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문화유산으로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 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흔히 ‘절밥’이라 불리는 사찰음식은 불교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사찰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며 불교의 가치와 정신을 담아 발전하면서 ‘절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소박하면서 영양의 과잉이 없는 건강식이자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수행식, 자연을 담은 자연식, 전통과 민족의 정서를 담은 전통 음식, 육류를 배제하는 채식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식재료의 재배와 손질,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은 물론 식사 예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수행의 일환으로 삼는 것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4



사찰음식의 정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단어는 공양(供養)으로 사찰에서는 ‘식사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공양을 한다.’라고 표현한다. 공양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바치는 일을 말하는데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불전에 올린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었다. 즉 사찰음식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정성을 들여 정갈하게 만들고 다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마음을 단정히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밥을 먹는 것을 식사가 아니라 공양이라고 말하게 되면 음식이라는 대상보다 먹는 나의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스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누군가가 공양을 올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보시한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는 뜻도 있다. 음식을 대할 때 그 음식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 음식을 베풀어준 시주자의 공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것이 공양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사찰음식에는 감사와 공경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음식을 오직 맛의 추구 대상으로 생각하고 맛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음식에 담긴 감사함은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감사와 공경은 맛에 대한 탐닉에 자리를 빼앗기는데 대부분의 감각적 쾌락이 그런 것처럼 맛에 대한 추구 역시 쉽게 만족하기 어렵다. 일례로 매운 음식 열풍이 불면서 점점 더욱더 자극적이고 속을 깎아내리는 매운맛의 음식이 출시되었다. 불교에서는 오신채 즉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라는 다섯 가지 채소를 금한다. 세속에서는 파, 마늘 등이 최고의 보양식품으로 취급되는데 몸에 힘을 내는 성분이 많기에 이것을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날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능엄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처럼 무엇을 먹느냐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

음을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 인간도 우주의 한 부분으로써 우주의 원리에 어긋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사찰음식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여 영양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원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낸다. 사찰이 자리한 산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약용식물을 식재료로 활용하여 식물이 가지고 있는 약리 작용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조리해서 먹음으로 병의 예방과 치료역할도 한다.

옛말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다. 사찰에서 공양을 하기 전에 외우는 계송인 『오관계』¹⁾를 보면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음식 자체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수행을 하기 위해 자신을 치료해 주는 약으로 음식을 섭취함을 강조한다. 음식을 내 몸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면 맛을 우선시하고 미각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육식을 철저히 금한다는 것이다. 불살생(不殺生)과 생명 존중이라는 불교의 사상적 기반에 근거한 채식 요리는 정신적으로는 상생의 식생활을, 물질적으로는 현대사회가 야기한 여러 병폐에 노출된 식생활을 구원할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사찰음식은 하나의 음식을 만들기까지 서로 다른 재료가 제 역할을 함으로써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인연법을 생각하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감을 알려주는 환경 중심적인 음식문화이자 자연 친화적인 문화이다. 그리고 어떤 맛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어야 하는 가를 되새기며 항상 다른 사람의 공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한다면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수행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요즘 기후변화, 자연재해가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육식을 자제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채소가 아닌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는 사찰음식 조리법 역시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찰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지구를 살리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각도량]**



1) 오관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다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

도현 스님 | WISE캠퍼스 불교학전공 석사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배를 이끄는 항해사가 되어 바람에 의지한 채 다가올 날씨를 예측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친 파도와 태풍은 끊임없이 몰아치고, 마음 편히 정박할 섬 하나 허락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흔히 고행苦海라고 말한다. 무명無明에 갇힌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에 이끌리고, 크고 작은 일에 쉽게 성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듯 고통의 근원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노를 저을 뿐이니, 우리의 항해는 늘 고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막막하고 험난한 바다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있다. 그 등대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위험한 암초를 피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묵묵히 빛을 비춘다.

불교에서는 계율戒律을 이러한 등대에 비유한다. 계율은 우리가 바른 길을 잃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수행의 토대이다. 그 중요성은 ‘과거 일곱 부처님’께서 공통으로 설하신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악막작諸惡莫作: 모든 악을 짓지 말며

중선봉행衆善奉行: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의自淨其意: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시제불교是諸佛教: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네 구절은 『장아함경』 「대본경」과 『대반열반경』 등 여러 경전에 가타(伽陀, 운문)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짧은 네 구절에 불과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담아낸 대표적인 계송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구절인 ‘제악막작’과 ‘중선봉행’은 몸과 말로 짓는 악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하는 계학戒學을 뜻한다. 이어지는 ‘자정기의’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을 뜻하며, 삼학三學의 관점에서는 정학과 혜학을 담고 있는 가르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마지막 구절인 ‘시제불교’는 삼학三學을 원만히 닦는 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께 공통되는 수행의 길임을 밝히고 있다. 이 계송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유思惟로 이해하는 것과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당나라의 천재 시인 백낙천과 높은 나무 위에서 수행하여 ‘조과선사鳥窠禪師’라 불린 도림선사道林禪師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불교에 밝고 자만심이 강했던 백낙천은 도림선사를 시험하고자 찾아가, 높은 나무 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선사는 오히려 높은 벼슬과 명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백낙천의 삶이 더 위태롭다고 일깨웠다. 명예의 자리에서 떨어질 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그의 말에 깨달음을 얻은 백낙천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물었다. 이에 도림선사는 「칠불통계계」를 들려주었고, 백낙천은 “그것은 세 살 아이도 아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비웃었다. 그러자 도림선사는 “세 살 아이도 알지만,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고 답하며 불교의 참된 가르침은 지식으로 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行으로 실천하는 데 있음을 일깨웠다.

나아가 계율은 개인의 수행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계율은 대지大地와 같아서 모든 선법善法이 그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 계율이 바르게 세워질 때 비로소 正定과 혜慧 또한 온전히 꽃을 피울 수 있다. 이 계율의 중요성은 『사분율四分律』 제1권에 담긴 부처님과 사리불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리불舍利弗이 한정처閑靜處에서 홀로 생각하다가 부처님께 나아가 “어느 부처님이 범행梵行을 닦으실 때 불법이 오래 머물렀고, 어느 부처님이 범행을 닦으실 때 불법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였는지 바라옵건대 잘 설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여쭙었다.

이에 부처님께서서는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손불, 가섭불은 불법이 오래 머물렀고, 수섭불과 구나함모니불은 불법이 오래 머물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사리불이 그 까닭을 다시 여쭙자, 부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섭불과 구나함모니불께서는 계경契經, 기야경祇夜經, 수기경授記經, 계경偈經, 구경句經, 인연經因緣經, 본생경本生經, 선도경善道經, 방등경方等經, 미증유경未曾有經, 비유경譬喻經, 우파제사경優波提舍經 등을 제자들에게 널리 설법하시지 않았고, 계율을 제정하시거나 말씀하시지도 않았으므로(不結戒, 亦不說戒) 제자들이 피로한 까닭에(諸弟子疲厭) 법이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였다(法不久住).

부처님께서서는 이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가지가지 꽃을 책상 위에 흘뜨려 두면 바람이 불어 날려 버리나니, 실로써 꿰지 않았기 때문이니라(以無線貫穿故). 이와 같이 그 부처님과 성문들이 멸도하신 뒤에는 세간 사람이 갖가지 이름과 종족과 집안에서 출가하면 불법이 속히 멀하여 오래 머물지 못하나니(佛法不久住), 경전의 법으로써 거두어 주지 않기 때문이니라(不以經法攝故).”

삼학三學의 관점에서 보면, 수섭불과 구나함모니불께서는 계율을 제정하거나 설하지 않으셨으므로(不結戒, 亦不說戒), 계학戒學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는 갖가지 이름과 종족, 집안에서 출가한 수행자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공통의 준거準據가 없

내 마음의 금언

었으니, 이는 법이 오래도록 머물지 못한 까닭임을 보여준다.

반면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손불, 가섭불께서는 경전을 널리 설하시고 계율을 제정하셨기에 멸도하신 뒤에도 불법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 수 있었다.

이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다에게 “내가 입멸한 후에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설해 왔던 법法과 율律, 이것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결국 계율은 수행자의 삶을 바르게 이끌 뿐만 아니라,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토대임을 보여준다.

고해苦海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계율은,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거친 풍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바른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된다.

도림선사가 백낙천에게 일깨워 주었듯, 계율은 관념으로 이해하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수행修行이다. 이와 더불어 『사분율』의 가르침처럼 계행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흠어지기 쉬운 법法을 하나로 묶어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하니, 이는 수행자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하는 화합和合의 실이기도 하다.

「칠불통계계」는 모든 부처님께서 공통으로 설하신 수행의 핵심 가르침으로,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내게 「칠불통계계」의 가르침은 세세생생世世生生 가슴에 새겨야 할 금언이며, 그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곧 나의 도정道程이다. **정각도량**



바다를 건너온 관음: 무위사 극락보전의 백의관음도

이승희 |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교수

아미타불 뒤, 백의관음을 만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월출산 남쪽 기슭, 완만한 산세에 포근히 감싸인 곳에 자리한 무위사는 신라 진평왕 39년(617)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랜 세월 법맥을 이어온 이 사찰의 중심에는 국보 극락보전이 있다. 극락보전은 1430년(세종 12) 효령대군이 총책임을 맡아 중창한 건물로, 정면 3칸·측면 3칸 규모의 단층 맞배지붕 전각이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안정된 비례와 구조적 균형을 중시한 조선 초기 목조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진현 ‘불우’ 조에는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했던 무위사를 이제 중수하고 이로 인해 수륙사로 한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이를 통해 무위사가 조선 초기에 수륙재를 전담하여 설행하는 사찰, 즉 ‘수륙사’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모든 영혼에게 공양을 올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식으로, 조선 전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시행되었다. 이러한 기록은 1430년의 중창이 왕실의 후원 아래 수륙재를 봉행하기 위한 공간을 정비하는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극락보전의 공간은 건립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건립 46년 뒤인 1476년(성종 7), 전각 내부를 개조하는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천장과 후불벽이 새롭게 설치되고,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할 불단이 마련되었다. 건립 후 반세기 가까운 시점에 내부 공간을 다시 구획한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변화하던 불교 의례와 신앙의 흐름에 맞추어 예배 공간을 재구성하려는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는 훗날 무위사 극락보전만의 독특한 공간 구성과 벽화 배치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후불벽 뒤, 또 하나의 예배 공간

1476년 극락보전의 내부를 개조하면서 불단 뒤에는 거대한 후불벽이 새롭게 세워졌다(도 1). 이 벽은 전각 내부를 앞과 뒤의 두 공간으로 나누었다. 후불벽 앞에는 아미타삼존불을 중심으로 참배객들이 예배하고 행동하며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마련



도 1. 무위사 극락보전 내부 후불벽

되었고, 자연광이 스며드는 밝은 예배 공간이 형성되었다. 반면 후불벽과 전각 뒷벽 사이에는 폭 약 2미터 남짓의 좁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판장문을 닫으면 외부의 빛이 거의 차단되는 이곳은 한층 고요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띠었으며, 황토 바탕의 뒷벽에는 백의관음보살과 노비구를 그린 벽화가 자리하고 있다.



도 2 〈백의관음도〉, 조선 1476년,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불전 내부에 후불벽을 세우고 그 뒷면에 관음보살을 배치하는 전통은 중국 오대·북송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반적으로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모신 대웅전의 후불벽 뒤에 관음 도상을 배치하였지만, 무위사는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모신 극락전의 성격에 맞추어 후불벽 뒷면에 백의관음을 그려 넣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당시 중국 불전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극락전이라는 예배 공간의 성격에 맞게 재해석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황토를 발라 마련된 벽면에는 백의관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도 2). 백의관음은 두 손을 복부에서 우아하게 교차한 채, 한 손에는 정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버들가지를 든 모습이다. 정병은 중생의 병을 씻어내고 갈증을 해소하는 감로수를 담고 있으며, 버들가지는 그 자비의 물을 세상 곳곳에 뿌리는 도구다. 보살은 거대한 만월과도 같은 원형의 광명을 등진 채, 거친 바다를 연잎 하나에 의지하여 부드럽게 건너오고 있다. 그 시선은 바로 앞에 있는 노비구를 향해 따뜻하고 자비로운 빛을 내뿜는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백의관음도가 고려시대 이래 익숙한 전통적인 ‘수월관음도’ 형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대개 수월관음은 보타락가산의 기암괴석 위에 편안히 앉아 선재동자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무위사의 백의관음은 암반에 앉아 있는 대신, 출렁이는 거친 바다 위에서 연잎을 타고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입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도상, 즉 바다를 건너오는 백의관음의 모습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무위사 극락보전에 수용되었으며, 이러한 선택은 강진이라는 지역의 역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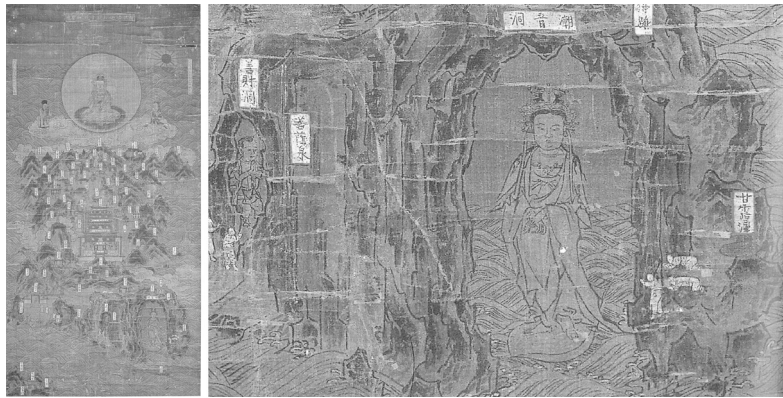
바다를 건너온 관음, 해양 교류가 전한 새로운 도상

물결 치는 바다 위에서 연잎을 타고 다가오는 관음의 형상은 동아시아 해양 세계에서 공유되던 보타산 관음신앙의 시각적 전통과 맞닿아 있다. 당나라 말기 이후 해상 교역이 활발해지고 송대에 이르러 해양 실크로드가 번성하면서, 중국 절강성 주산군도에 위치한 보타산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관음 성지로 자리 잡았다. 바다를 오가는 항해자들에게 관음은 풍랑을 잠재우고 무사한 항해를 지켜주는 ‘남해 관음’으로 신앙되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다양한 회화와 설화 속에 나타났다.

실제로 13~14세기 무렵 제작된 〈보타락가산관음현신성경도〉를 보면(도 3) 보타산 조음동(潮音洞)의

거친 파도 위에서 연잎을 타고 현신한 백의관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무위사 벽화와 도상적 특징을 공유하며, 무위사의 백의관음이 이러한 해양 관음신앙의 전통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무위사 벽화의 가치를 도상 자체의 독창성에서만 찾기는 어렵다. 중국 보타산의 남해관음이나 조음동 관음현신 도상들은 이미 바다를 배경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도상의 진정한 의의는 중국·해양계 도상이 한반도 남부의 사찰에 수용되어 새로운 신앙적·공간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강진은 남해안 해상 교류망과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중국 남동부에서 전개된 관음신앙과 도상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무위사가 이 도상을 단순한 해양 수호신앙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불전이나 조선 중기의 위봉사와 선운사 등은 주로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 후불벽 뒤에 전통적인 수월관음 형식을 배치했다. 반면 무위사는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모신 극락전의 성격에 맞추어, 후불벽 앞에는 아미타정토를, 그 뒤에는 바다를 건너오는 백의관음을 배치했다. 이는 외래 도상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극락왕생 신앙과 결합하여 새로운 공간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도 3. 보타락가산관음현신성경도(좌)의 하단 우측 부분, '조음동(우)'
원 13세기 후반 ~ 14세기 중반, 견본채색, 112.8×56.5cm, 일본 조소지(定勝寺)

그렇다면 무위사는 왜 이러한 백의관음 도상을 극락전 후불벽 뒤에 배치했을까. 그 실마리는 조선 전기 널리 행해졌던 관음예참과 아미타정토 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

참회와 왕생의 공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성행했던 '관음예참' 의식은 당대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었다. 당시 널리 읽히던 『백의해』나 『관음예문』 같은 문헌들은 관음신앙이 단순한 현세 기복을 넘어, 스스로의 악업을 참회하고 아미타불이 계신 '무량수국'으로 왕생하기 위한 수행의 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극락보전 후면의 어두운 공간은 예불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십악업을 참회하며 왕생을 발원하는 수행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각의 전면에서는 아미타불의 광명과 마주하며 서방정토로의 왕생을 염원하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후면에서는 백의관음을 친견하며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고 정화하는 의례적 경험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극락보전의 공간은 아미타정토에 대한 '왕생의 발원'과 관음보살에 의한 '참회의 실천'이 서로 호응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앙적 의미가 벽면의 불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비구의 합장과 관음의 감응

벽화 속 노비구는 누구일까. 그를 무위사에서 수행하던 이름 없는 승려로 보기도 하고, 의상대사가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설화와 연결하기도 한다. 또 『화엄경』에서 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길을 떠났던 선재동자를 떠올리는 시각도 있다. 선재동자 역시 구도의 여정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비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이다.

노비구는 두 손을 모은 채 관음보살을 우러러본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면 바다 위에 모습을 드러낸 백의관음과 마주하게 된다. 노비구는 관음을 친견하는 수행자인 동시에, 벽화 앞에 선 예불자를 대신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친견’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벽화에 함께 적힌 「낙산관음찬」이다. 고려의 문인 유자량이 지은 것으로 전하는 이 찬문에는 관음보살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며 ‘만월과 같은 모습을 친히 뵈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음을 눈앞에서 직접 뵈고자 하는 발원이 그림과 글 속에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이다. 만월을 등지고 모습을 드러낸 관음과 그 앞에서 합장한 노비구의 모습은 이러한 ‘관음 친견’의 염원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러한 의미는 당시 관음예찬에서 독송했던 『관음예문』의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관음예문』은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에 응하는 관음의 자비를 메아리에 비유하고, 다시 높은 하늘의 달이 수많은 물그릇에 두루 비치는 것에 견준다. 하나의 달이 수많은 물에 차별 없이 모습을 드러내듯, 관음의 자비 또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중생에게 미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벽화의 만월과 바다는 단순한 배경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달과 바다는 수월관음 도상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이미지이므로 『관음예문』의 특정 구절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낙산관음찬」에 담긴 관음 친견의 발원과 『관음예문』에서 강조되는 관음의 자비로운 감응을 함께 놓고 보면, 만월을 배경으로 바다 위에 현현한 백의관음과 그 앞에 합장한 노비구의 관계가 한층 분명하게 다가온다.

수행자가 참회하며 관음의 자비를 청하면, 보살은 그 간절한 부름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낸다. 노비구의 합장과 관음의 현현은 바로 이러한 ‘발원과 감응’의 순간을 한 화면에 담아낸 것이다. 벽화 앞에 선 예불자는 노비구의 시선을 따라 관음을 바라보며, 자신도 관음을 친견하는 감응의 순간에 함께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무위사 백의관음도는 관음보살의 모습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참회와 발원,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관음의 자비를 눈앞에 펼쳐 보이는 일종의 ‘시각화된 예찬문’이라 할 수 있다. 노비구의 합장은 예불자의 시선을 관음에게 이끌고, 관음의 현현은 그 간절한 부름에 응답한다. 그 순간 그림은 보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관음을 친견하고 그 감응을 체험하는 신앙의 현장이 된다. **정각도량**